

1천불자×1천원=더불어 사는 세상

신행연장

전주 천천클럽의 무주상보시

‘한 자루의 솜뭉치 어둠을 밝히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을 만든다. 한 번의 손길이 이웃에게 웃음을 주며, 한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밝힌다.’

천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주 천천클럽 1천여명의 불자들이, 이들은 작은 힘을 합쳐 큰 힘을 만들며, 상(相)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을 지역사회에 나눠 주고 있다.

3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전북불교회관 식당에 20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심공양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배식대에서는 앞치마를 걸친 거사들이 연신 땀을 닦아 내며 정성을 들여 식판에 밥을 담아 내고, 주방의 보살들은 비빔밥 부식을 담아 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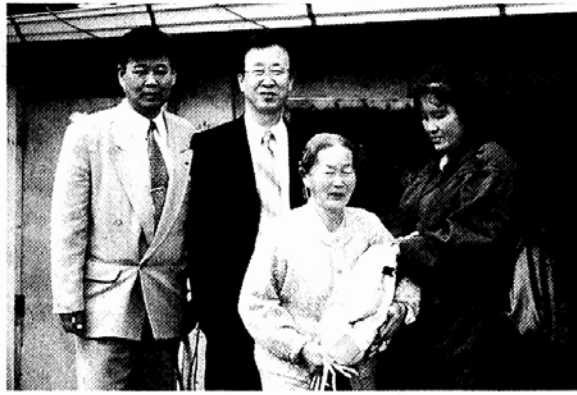
이날은 전주 우리는 선우(회장 오종근, 호원대교수) 천천클럽 회원 20여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점심공양 자원봉사를 펼치는 날. 대부분의 거사들은 직장의 점심시간을 이용, 잠시 짬을 내어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점심공양 봉사 후 서둘러 설거지까지 마친 몇 명의 회원들은 결연을 맺고 있는 경로당과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소년원 등 14곳에 쌀과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오종근 회장과 함께 덕진동과 송

전동 일대를 맡은 박영희 거사(43, 전주 호성동)와 김남인 보살(49, 전주 삼천동)은 경로당과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가 10kg들이 쌀포대와 5만원씩의 보시금을 전달한다.

“마침 쌀이 떨어졌는데...” 혼자사는 할머니가 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끝까지 따라나온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지만, 천천클럽 회원들은 웃음으로 답할 뿐이다. 천천클럽은 수혜자들에게 2년간 주기적으로 매달 쌀과 지



◇전주 천천클럽 오종근회장(왼쪽 2번째)과 회원들이 3월27일 혼자사는 할머니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노인 점심공양 봉사

소년가장에 쌀보시

타종교인도 회원가입

원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저 전달만 할 뿐 ‘어디’라고 자신들을 밝히지 않는다.

김남인 보살은 “부처님께서 무주상 보시를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느 단체에서 왔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드리고 가면 그뿐”이라고 말한다. 박영희 거사 역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 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커지도록 항상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면서 남

과 나누는 그 자체가 그저 즐거움 뿐이라고 토로한다.

‘천원으로 자비를 실천하자’는 모토로 99년 출발한 천천클럽은 출범 당시 30여명의 회원이 2년만에 907명으로 늘었다. ‘1천원’이라는 액수가 많고 적음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낸다는 의미가 더 크다. 매달 1천여명이 1천원을 보내준 것으로 지난해만도 연인원 200명에게 총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중에는 출산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베트남어인과 불구자식과 손자2명을 부양하는 할머니, 소년가장들이 혜택을 받았다.

천천클럽은 후원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준다. 매달 소식지

도 전주 우리는 선우의 후원으로 발행할 만큼 투명한 관리에 힘쓴다. 그 래서인지 요즘은 천천클럽의 신행이 지역 사회에 소리 소문없이 알려지면서 전북 12개 사찰과 타종교인들도 종교의 벽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문의) 011-652-8892. 오종근 회장은 “작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체계적이고 폭넓은 자비를 전달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한다.

김원우 거사 (ww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마음 낮추면 낮출수록 부처의 길 넓어져요”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것은 불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직한 생활태도입니다. 모름지기 사람들은 불가의 하심을 알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어울려 사는 법으로써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다양성으로 세상이 갈수록 개인주의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조차도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는데 이는 인간 개개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누가 잘 나고, 누가 못나고 하는 경계의 분별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것이지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는 더욱더 한 뼨이라도 더 커 보이고 잘 나

마음한번 돌리면 거기가 바로 극락

보이려고 발돋움하는 어린이 같은 모습만 보이니 안타까울 따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복권을 넓혀 줍니다. 그렇기에 자기낮춤은 불자들에게는 초발심이고, 세상 중생들에게는 언제까지나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낮춤은 조화를 향한 길이요, 부처에게로 한 발짝 다가서는 신행의 행동입니다. 무릇 자기낮춤은 품으로 표현하는 거짓된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치 있고 남을 이롭게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을 열어내고 자신의 허영을 떨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절에 일곱 살짜리 사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아이들이 이 녀석을 따돌리고 구박하기가 일쑤여서 아주 천덕꾸러기 행세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쥐어박히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처음에는 울기도



혜향스님
광주
형림사 주지

했지만 지금은 구박을 받거나 쥐어박혀도 항상 웃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쥐어박히면서 웃는 녀석의 속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듯 아이들 세계에서도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은 허탈하고 씁쓸함이 입안 가득 고여움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 현재의 중생들 모습임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요즘을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며 자비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부처가 되려 발심을 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스스로 발심해 하심을 갖고 이타를 행하면 이러한 이타로 인해 몇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 세상은 맑고 향기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 한번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 법이 뒷간과 화장기만 못하고 자기 낮춤도 머릿속에만 든 공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낮아지지 않으면 집착은 엄청나게 자신을 괴롭힐 것이고, 욕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불성은 커지고 커져 수미산과 같아져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심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고 또 쌓아 끝내는 입을 열하는 것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지요.

마음 한번 돌리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것이 바로 무간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렇듯 마음 한번 바꾸는 데는 자기낮춤이 바늘 끝 불성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심하며 사십시오.

신행캘린더

4월 4일(수)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및 성역화 사업 출범식=해남 대둔사는 오후 2시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및 성역화사업 출범식을 거행한다.(061)534-5502

■개혁을 위한 종교NGO네트워크 출범식=개혁을 위한 종교NGO네트워크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출범식을 갖는다.(02)725-8231

4월 5일(목)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 천도제=조계종 총무원은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삼풍백화점 터에서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 천도제를 봉행한다.(02)730-9822

4월 6일(금)

■법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람=부산 법어사는 8일까지 3일간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람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51)508-3127

■국군불교총신도회 1주년 기념법회=국군불교총신도회는 6일 오후 5시 국방회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 기원대회’를 봉행한다.(02)720-7060

4월 8일(일)

■한국 윤불련 대의원 정기총회 및 수련대회=한국 윤불련은 9일까지 수덕사에서 제 6차 대의원 정기총회 및 수련대회를 개최한다.(042)626-6463

■원성스님 초청 법회=서울 장충동 불광산사는 오후 2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주제로 (종경)의 저자 원성스님 초청 법회를 갖는다.(02)2276-0993

■청주 명장사 대승전 기공식=청주 명장사는 오전 11시 요사채인 대승전 기공식을 봉행한다.(043)223-0322

4월 9일(월)

■봉축열차 개관식 및 고불식=종경소리는 오후 2시 고덕동 차량사업소에서 봉축열차 개관식과 지하철 포교발전 및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고불식을 봉행한다.(02)736-5583

4월 10일(화)

■중합불교회관 낙성 및 삼존불 봉안대회=천태종 창원 원흥사는 오전 9시 30분 대법당에서 중합불교회관 낙성 및 삼존불 봉안 대법회를 봉행한다.(055)276-3382

■육군훈련소 입소대 신축 금강법당 봉축법회 및 낙성식=육군훈련소 입소대 금강법당은 오후 1시 30분 봉불점안 및 낙성식을 봉행한다.(041)741-3734

생활속의 불교

비워야 채워진다

을 때에 빈 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 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산다. 죽음이 임박해서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엄연한 진리를 망각 속에 묻어둔 채로 지낸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고 데려갈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아끼고 집착하고 목말라하면서 산다. 소꿉친난하는 아이들과 같다. 해질 녘이면, 다 버려두고 훌쩍이 흩어질 텐데 땅뭉치 집짓기에 열중하는 아이들과 같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지만도 못하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복이다.

결코 같이 갈 수 없음을 알면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가령 저 진

시황처럼 미어라가 되어서라도 내 재산 내 사랑 내 명예 내 권력을 지키겠다고 생각함과 황금을 무덤까지 끌고 들어가려 한 그 어리석음을 무어라 말할까, 그저 측은할 뿐이다.

소유의 참 뜻은 ‘한시적인 관리’다. 영원한 소유란 없다. 또 소유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비가 없는 소유란 무의미하다. 소유란 소비할 때에 비로소 확인되는 성질의 것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진리다. 그러기에 일체 만물은 서로 살리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바꿔쓰며 한마음 한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육신, 내 재산, 내 사랑, 내 지식... 하는 눈으

로 보면 거기에 너, 나의 대립과 투쟁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리에 대한 무지요 자연 법칙에 대한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이다. 일체 만물은 서로 맞물려서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이 흐르듯이 채워지면 비워야 하고 비우면 채워진다.

내가 놓으면 상대가 살고 상대가 살면 내게 또 채워진다. 끊임없이 주고 받는 공생·공용·공식의 고리가 계속된다. 거기에 갈등도 투쟁도 괴로움도 없다. 편안함이 있을 뿐이다. 비우면 채워지고 또 비우면 또 채워지는데, 주변 받게되고 또 주변 받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애지중지 할 게 남겠는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난 한 재벌을 보면서 다시금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본다. ■龍眼

공 고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 불신임 및 제명 결의

불기 2545(2001)년 3월 24일 오후 1시 마곡사 대광보전에서 열린 일현문도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음을 공고 함

● 제명 대상자

성 명 : 김 형 기
불 명 : 진 허
승적번호 : 0668-111
직 위 : 대한불교 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 원 인

1.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수령 약 천년된 괴목 2주와 약 3백년된 전나무 4주를 무단 벌목한 행위
2. 말사주지 품신동 각종 비리에 연루된 부당한 인사 행위
3. 전 문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부당 행위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은 위와 같이 불법부당한 일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는 과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불신임 및 제명을 전문도의 이름으로 결의했다.

불기 2545년 3월 30일

● 문도회 참석자 명단 ●

- | | |
|-----------------------|-------------------------|
| 경암(위성선 보림사 주지) | 자암(현정사 주지) |
| 윤월(마곡사 선역) | 상초(정각사 주지) |
| 덕상(전중앙총회의원) | 만인(봉수사 주지) |
| 진연(마곡사 부주지) | 태설(봉은사 원주) |
| 법진(심우정사 주지) | 법전(신원사 주지) |
| 진상(황룡사 회주) | 건진(교육원 교육국장) |
| 성효(해원사 주지) | 서곡(대원암 원주) |
| 진욱(월은사 주지) | 송오(해인 승가대학교수) |
| 성안(신안사 주지) | 만월(마곡사 대종) |
| 법민(전 마곡사 주지) | 성민(마곡사 대종) |
| 진원(대전 포교당 주지) | 태진(총무원 규정부 조사 국장) |
| 태관(비암사 주지) | 광해(광해사 주지) |
| 양산(총무원 사회부장) | 석파(비래사 주지) |
| 성수(교단사 주지) | 성운(마곡사 호법 국장) |
| 승일(무량사 주지, 마곡사 기획 국장) | 만오, 혜우(동월사 주지) |
| 장곡(갑사 주지, 현 중앙총회의원) | 태범(보림사 총무) |
| 성원(강화 선원사 주지) | 미묵, 행각, 주산, 원철, 성철, 명산, |
| 학중(백공 선원 원장) | 지원, 상취, 보성, 송하(대조사 주지) |
| 여공(용암사 주지) | 성문, 승연(마곡사 대종) |
| 승하(대조사 주지, 마곡사 포교 국장) | 지성, 태선(보덕암 주지) |
| | 기용, 기산(은석사 주지) |

마곡사 일현 문도회 대표 경암·윤월 외 일동